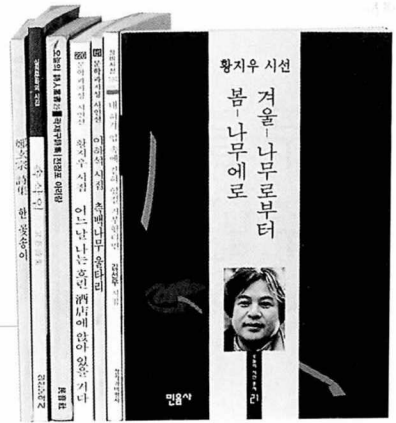


“나무처럼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으랴”

시인들의 상상력에 뿌리내린 나무



“생각해보라. 나무처럼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으랴”라고 말한 이는 미국 시인 조이스 킬머다. 그는 나무에게서 온종일 신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사실 나무에 대해 시 한편 안 써본 시인이 어디 있으랴. 시인들은 뿌리에서, 줄기에서, 잔가지에서, 나무의 푸른 이파리에서 수많은 비유를 만들어낸다. 때로 나무는 시인들의 추억을 매개하기도 하고 시인 자신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고달픈 삶에서 희망을 발견케 하는 나무

황지우는 나무에 대한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는 시인이다. 그는 시 <비 오는 날 느티나무 아래서>에서 느티나무를 매개로 “더 큰 줄기로 비 맞는” 유년과 20년이 지나도 그때나 다름없이 비를 맞고 있는 “어물쩍한 30대 어색한 나이”를 묘사한다. 우산이 없어 “까마득한 운동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던 가난한 소년은 자라 성년이 됐지만 세상의 비를 피하기 위해 그는 겨우 ‘비닐우산’ 밖에 준비하지 못한다. 그 비닐우산 속으로 “20년 전 어린 느티나무가 들어와 / 후두둑 후두둑 몸 떨며 이상한 저음으로” 여전히 울고 있는 것을 시인은 발견하고, “치가 떨리는” 절망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에서처럼 그는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도 그는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터지면서 /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 푸르른 사월 하늘 받아들 이면서” 꽃 피는 나무를 보면서 말이다.

30대 황지우의 시에 등장하는 나무가 고달픈 삶을 묘사하기 위한 매개가 되거나 그런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소재였다면, 40대 황지우 시의 나무는 좀더 너그럽다. 비록 11월의 나무에서 “내가 나이에 당황하고 있을 때”처럼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감한 사람이 / 머리를 득득 긁는 모습”을 보지만(<11월의 나무>), 그는 “나뭇잎 다 지고 숲도 입적”한 가야산 숲 “잘린 큰 나무 밑둥”에서 종소리를 듣기도 한다(<나무에서 종소리가 났다>). 그 종소리는 이제 살아온 생을 서서히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는 “또다른 다비를 위해 크고 있는” 40대의 몸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이제 그는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인다. “이젠 제발 ‘나’ 아닌 것들을 위해 살 때다, 자꾸 / 되뇌기만 하고” “제 손바닥에 놓여진 생을 부끄러

워할 때”, “이 세상 어디선가 갑자기 / 울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저녁나무에서 거룩함을 느끼기도 한다.

나무처럼 서서 세상을 버티는 시인들

김선우에게 ‘오래된 은행나무’는 할머니-어머니-나로 이어지는 훼손된 여성성을 상징한다(<어미목의 자살1>). 그는 은행나무를 ‘그녀’라고 부르는데, 은행나무가 벼락을 맞은 자리에 “길이 나면 땅값이 오를 거라고 은근히 힘주어” ‘사내’가 말하지만, 시인은 은행나무가 “매달았던 열매 속에서 피 흘리는 엄마들이 걸어나오”는 걸 보기도 하고 “순식간에 늘어버린 대기의 주름살 속으로 반짝거리며 사라져가는 태앗적” 나를 보기도 한다.

그의 또다른 시 <선운사, 그 똥낭구>에서도 은행나무는 여성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갓 여문 은행나무가 피우는 “애기똥 냄새”를 맡고 시인은 “저렇게 대기 속에 하초를 활짝 펼치고 / 배내똥 같은 열매를 길러낼 수 있다면” 하고 바란다. 그의 모성은 세상을 다시 제 몸으로 낳고 싶은지 모른다.

똑같은 은행나무지만 광재구는 “금빛 추억의 물이 드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끄집어낸다(<은행나무>).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 수천만 황인종의 얼굴 같은 너의 /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라고 그는 노래한다.

나무는 자주 울타리가 되기도 한다. 이하석의 <촉백나무 울타리>에서 촉백나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다. 촉백나무는 “죽음의 냄새 같은” 세상에 살아 있는 향기로서 있지만 그 너머엔 죽음이 있다는 것 또한 시인은 잊지 않는다. 고 은의 <촉백나무 울타리>는 안과 밖, 나와 너를 가르는 경계다. 그러나 그리 견고한 울타리는 아니다. “그 울타리 안과 밖이 / 서로 딸꾹질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시인들의 꿈은 “한 그루 나무와도 같” (정현중 <한그루 나무와도 같은 꿈이>)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식물적이다. 그들은 나무처럼 서서 온몸으로 세상과 문명의 바람을 막아내며 식물적으로 버티고 있다. —김정근기자